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22일(화)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수질 환경 과	담 당 자 • 수계총량담당 김경희 ☎440-3601 • 담당자 이원오 ☎440-360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깨끗한 인천 수돗물, 이제 ‘인천하늘수’ 로 불러주세요

- 3.22일 세계 물의 날 맞아 인천 수돗물 ‘인천하늘수’ 브랜드 선포 -
- 물의 소중함 되새기는 계기, 한강 상류에서 하구까지 통합 물관리 -

ISO22000 국제표준인증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깨끗한 인천 수돗물이 새로운 브랜드 ‘인천하늘수’ 로의 출발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인천광역시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및 인천하늘수 브랜드 선포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면방식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열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인천하늘수 브랜드 선포, 한강유역의 하나 된 물 합수식 등을 통해 ‘물의 소중함’ 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엔(UN)은 인구와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지정·선포했다.

올해 우리나라 공식 주제인 ‘통합 물관리(하나 된 물)’은 유엔(UN)이 정한 주제 ‘Groundwater, Making the invisible visible(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과 연계해 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성과와 미래상을 그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인천시는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른 도시특성을 감안해 보이지 않는 오염문제를 해결하고자 완충저류시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통해 도시 물순환에 노력하고 있다.

\* 오염총량제 시행구역에서 방류수를 일시 저류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말함.

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한강하구 지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를 운영해 한강하구 관리와 보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도 이끌어 내고 있다.

아울러, 인천한강하구포럼, 한강하구 기초조사, 「인천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한강하구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협력프로그램 개발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천-하구-연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정수장 위생관리사업, 스마트 인프라 사업, 인천형 워터케어 서비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해 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9월 ISO22000\*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정한 국제표준규격을 말함.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 수돗물의 새 브랜드인 ‘인천하늘수’의 BI(Brand identity, 브랜드 디자인)가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시민들이 투표로 선정된 인천 수돗물의 새 이름 ‘인천하늘수’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보유한 선진 국제도시 인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9,001명의 시민 참여해 선정된 ‘인천하늘수’ BI는 ‘하’에서 ‘수’까지 이어지며 흐르는 글씨체를 통해 ‘맑게 흐르는 물’을 의미하며, 물의 유입, 확장, 분산, 순환이라는 과정을 ‘水(물 수)’자를 활용한 역동적인 심볼로 표현해 ISO 22000 국제인증으로 거듭나는 인천하늘수의 희망과 의지를 상징한다. 또,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핵심가치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이 한강 하구를 거쳐 인천 앞바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강 하구의 생태환경통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천하늘수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소중한 생명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진> 하늘수 BI(이미지 2개)





인천 하늘수



### 행복이 물들다.

‘하’부터 ‘수’까지 이어지며 흐르는 글씨체를 통해 ‘맑게 흐르는 물’을 표현합니다.

물의 유입, 확장, 분산, 순환이라는 과정을

‘水(물 수)’ 글자를 활용한 역동적인 심볼로 상징화하였습니다.

ISO22000 국제인증으로 새롭게 태어난 인천하늘수의 희망과 의지를 이미지화합니다.